

LG화학, 초일류상품으로 승부건다!

2차전지-편광판 등 정보전자소재 전략화 ... 중국 현지투자도 적극적

LG화학(대표 노기호)은 석유화학, 산업재, 정보전자소재 등 3개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외 생산공장과 연구소, 마케팅 조직을 가동해 글로벌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차전지와 편광판을 생산하는 정보전자소재 등 전략사업과 고부가가치 기술집약형 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전략사업과 국외사업에 집중 투자할 시점을 맞아 진정한 세계 일등이 되도록 ▷연구개발(R&D) 강화 ▷과감한 현지 인재 확보 ▷고객에 대한 토털 솔루션 제공 등을 통해 고객과 투자자는 물론 경쟁사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LG화학은 2001년 기업분할을 실시해 국내 최대 종합화학회사로 새롭게 출범했다. 기업 분할 후 염료 사업은 독일 도멘, 분체도료 사업은 미국 페로, 에폭시 사업은 독일 베이크라이트에 각각 팔았다.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차세대 주력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따라 LG화학이 현재 집중 육성하고 있는 분야는 2차전지, 디스플레이소재 등 정보전자소재 사업. 리튬이온·리튬폴리머 전지,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용 편광판, PDP용 형광체, 컬러필터 감광제 등을 독자 기술로 개발해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소재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2002년에는 2차전지 매출이 확대되고 LCD 시장 호황으로 편광판 실적이 호조를 보여 관련 분야에서 총매출 4521억원, 영업이익 383억원을 올리면서 사업본부체제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내기도 했다.

LG화학은 2003년에도 2차전지·TFT-LCD용 편광판 등 고부가 제품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매출 6000억원과 영업이익 680억원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또 정보전자소재 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충북 오창에 건설하고 있는 최첨단 정보전자소재 종합 공장 오창테크노파크에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지, 편광판 등 현재 핵심사업은 물론 미래산업인 유기EL소재, 연료전지 등 고성장 정보전자소재 사업까지 전개한다는 복안이다.

LG화학은 전략사업 육성 외에 기존 석유화학과 산업재 분야에서 고부가·고기능성 제품 매출 비중을 확대하는 사업구조 고도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 22개인 초일류 제품을 2005년까지 48개로 늘릴 계획이다.

주력사업인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PVC·ABS 사업을 집중 육성 사업으로 특화해 기존 가격경쟁 위주인 범용제품 생산에서 벗어나 기술에 기반을 둔 고부가·고기능성 제품인 투명ABS, 난연ABS, EP(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꾸준한 매출을 보이고 있는 산업재 분야에서는 PVC창호, 고풍택 시트, 인조대리석 등 차별된 기술력과 <LG데코빌>이라는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를 통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LG화학은 중국·미주·유럽지역에 대한 투자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수출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현지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1995년 이래 중국지역에 대한 활발한 투자 전개로 현재 중국 텐진에 생산능력 34만톤 규모 PVC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6/25>